

200자 안내

과학적 사주풀이

과학역학연구회 지음

“역학은 미신이 아니며 과학에 근거한 변화의 법칙”을 밝힌다는 입장에서 전통 사주풀이의 과학화를 시도한 책으로, 저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젊은 과학자들, 사주도표 만드는 법과 운세보는 법, 그리고 어떠한 운명을 타고났는가를 아는 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해서 총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역학개념을 깨고 신세대에 맞게 저술하여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사주를 풀어가는데 묘미를 제공한다.

북진/A5신/280면/5000원

고독은 여자를 자유롭게 한다

헤르만 헤세 지음/편집부 옮김

헤르만 헤세의 「한밤중 후의 한 시간」을 새로이 편역한 산문집. 작가의 독특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스물 두 살 때 체험했던 방황과 사랑을 그렸다. 헤세의 젊은 시절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1900년의 일기」는 철저한 고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정서가 들어있다. 소설가 뿐만 아니라 시인, 수필가, 평론가 그리고 화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던 작가는, 휴머니즘에 기초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동양적인 향수를 말한다.

한나라/A5변형/224면/6000원

니체

J.P.스텐 지음/임규정 옮김

“신은 죽었다는 것, 세계는 힘에의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참된 가치는 열렬함의 도덕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던 니체 연구서. 저자는 이 책에서 ‘격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니체의 저작에 대해 일종의 ‘철학적 실험’을 한다. 그는 니체의 삶에 있어 주요사건들과 니체가 구사하고 있는 다양한 문체 그리고 니체가 품고 있는 언어에 대한 통찰 등을 지적하면서 니체의 실존주의를 설명한다.

지성의샘/B6/240면/6000원

생활 속의 논리 (1·2)

정경임 지음/서윤석 그림

생활 속의 에피소드와 고전적인 이야기들

예로 들어 논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수록된 이야기는 “논리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복잡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면서도 간명하게 해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논리학상의 개념이나 원리들이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알려준다. 1권에서는 형식논리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2권에서는 형식논리학의 두 분야인 귀납추리와 연역추리를 다룬다.

지양사/A5신/각 204면/각 4500원

장미도둑

쿠르트 쿠센버그 지음/신현철 옮김

독일 출신 우화소설가인 작가의 독창적인 의상과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스물 아홉 편의 작품을 엮은 책. 마음의 정원으로 숨어드는 장미도둑을 사랑으로 보는 시선과 누구나 자신만의 병이라고 여기는 ‘진담증’을 작가 특유의 의상과 묘사하여 어른들에게 순수함을 찾아주고자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음직한 일상의 이야기와 단상을 기지 넘치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게 한다.

책나무/A5신/276면/4500원

어느 낮선 별에서

이제하 지음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로 이상문학상을 받았던 작가의 대표작 선집.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특유의 방법론을 통해 반드시 두 눈을 뜨고 바로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현실을 보는 방법이 아님을 시사하는 작품들을 모았다. 작가의 환상은 과거와 현실이 서로 뒤엉켜 응축되어 있는데 「스미스氏의 藥草」나 「草食」 등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고, 「임금님의 귀」는 군사 정권에 대한 야유와 풍자를 보여준다.

청아/A5신/380면/5000원

호감을 사는 처세심리학

시마다 가즈오 지음/박달규 옮김

일본 사회심리학회 회장인 저자의 저서로,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호감을 사는 방법을 일러준다. 사회에서 처세술이 부족하여 당하게 되는 고충을 파악하여 그 상황에 따른 풍부한 실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서술한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과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등 능숙한 화술과 처세의 방법이 들어있어 자신감을 갖고자 하는 경영자나 판매사원에게 필요한 지침서.

KITI/A5신/200면/4000원

당신의 자녀는 영재인가요

제임스 알비노 지음/전경원 옮김

부모로서 영재아 교육에 책임감을 갖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 창의적 두뇌훈련은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부모와 교사의 지도가 요구된다는 내용. 아이들의 재능을 조기 발견하여 키워줄 수 있는 영재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연구결과와 아울러 서술하여 ‘부모교육서’라고도 할 수 있다. 영재의 정의와 판별에 대한 문제, 리더십의 특성 및 장애영재의 판별과 교육에 대해서도 다룬다.

삼천리/A5신/252면/4500원

일할 땀 프로, 화장할 땀 여자

강선영 외 지음

카피라이터, PD, AE 등 광고계 현장에서 TV-CF를 기획하고 제작한 ‘광고맨’ 11명과 광고계 기자들이 직접 쓴 ‘광고 만든 이야기’ 15편의 모음. 최초의 순수 정치인 상업광고 출연 기록을 남긴 남양유업의 ‘나우’와 현대 젊은 남녀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는 에스콰이어의 ‘영에이지 심플리트’ 등 93년 상반기에 텔레비전 전파를 탔던 화제의 광고 15편에 얽힌 재미있는 제작 에피소드가 현장사진과 함께 실렸다.

미완/A5신/200면/4500원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고통을 알리

문혜영 지음

저자는 서문에서 “그리움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말을 꺼낸다. 일상적 사물을 아이와 같은 친진한 눈으로 보면서 한편으론 삶의 내면세계를 깊이 통찰하는 수필집. ‘그리움’을 불러오는 서정성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57편의 이야기는 철학적 사고를 이끌어 낸다.

지성문화사/A5신/286면/4500원

요점이 뭘니까

밥 보일란 지음/김철수 옮김

대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것과 아이디어를 판매하고 회사로부터 그것의 실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내용. 중견 경영자나 고참 경영자들이 대부분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판매자들의 발표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발표능력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하게 만드는 화술이 들어있다.

장원/A5신/266면/5000원

내 돈도 내 맘대로 못쓰냐?

반재진 외 지음

금융실명제 이후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

와 해프닝을 소설화. 뇌물이나 땅투기 및 정경유착 등으로 생긴 ‘검은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도 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찾아 재산 빼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비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형태를 소설로서 밝힌다. 현직 기자와 소설가, 시인 등 8명이 줄부편·관료편·정치인편·경제인편·금융인편·지하금융인편·재테크편·일반서민편으로 세분화하여 재미있게 집필하였다.

좋은아침/A5신/204면/3800원

생각에도 길이 있다

강혜원 엮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형화된 논리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된 수학능력평가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창의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재미있게 읽으면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시험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책은 80여편의 철학우화를 소개하고 그에 따라 철학적인 해설을 붙인 것이 특징. 선인들의 지혜와 과학적 통찰력을 통해 철학의 세계를 보여주며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논리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

우리교육/A5신/232면/5000원

세계 러브스토리 결작선

오 헨리 외 지음/최순희 옮김

오 헨리, 존 업다이크, 윌리엄 서로연 등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작가들이 쓴 사랑이라는 주제의 작품들 모음. 일인 연극 대사 같은 독백 형식의 「하느님 그가 전화하게 해주세요」나 일기 또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진 「벽장 속의 사랑」은 감성보다는 이성애 호소하는 작품들로 대부분 순수문학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단편소설의 긴장감과 문체미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도솔/A5신/360면/5000원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니어

홍파 지음

“미국은 과연 정의인가”란 질문을 던지는 시나리오 작가가 한국일보 미국판에 연재했던 소설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 “월남전에서의 미국은 추악했고, 비열하기까지 했다”고 월남전 참전을 회상하는 작가는, 서문에서 “20년 전의 월남전에서 뿌리가 갈려나갔던 미군병사를 찾아 지난 5년을 방황했다”고 밝힌다.

우리문화사/A5신/304, 328면/각 5500원

특소는 여자

이상헌 지음

여자들이 직장에서, 또는 연애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 "똑소리나게 일 잘하고 딱부러지게 연애하는" 비결을 네단락으로 나누어, 직장에서 확실하게 성공하는 여자, 연애에 확실하게 성공하는 여자, 똑소리나게 예절바른 여자, 결혼해서도 확실한 주부로 성공하는 여자 등 직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처세술을 담고 있다.

하늘 / A5신 / 272면 / 5000원

흔들리는 성

이재인 지음

1980년대말 운동권 학생들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와 운동권의 실체를 파헤친 소설. 작가는 밀도있는 문장과 긴밀한 구성으로 이데올로기의 허구와 철학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권 학생회장이 애인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겪는 고통과 몰신주의에 젖은 젊은이들의 세계, 주인공의 일기장이 공개됨으로써 드러나는 운동권의 전모 등 당시 젊은이들의 상황을 사실감 있게 그려낸다.

해화당 / A5신 / 280면 / 5000원

어느 천사가 내 노래에 귀 기울이리

호리 히데이코 지음 / 김시일 옮김

일본의 사회학자인 저자는 평생에 걸쳐 청소년들과 접하며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고 삶에 있어 소중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다. 이 책 또한 저자가 "젊음이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서 인간성 상실과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직시하여 젊은이에게 진정한 젊음의 의미와 특권을 말해주는 수필집.

대림기획 / A5신 / 218면 / 4000원

계간지

동향과 전망 (93년 가을)

[특집]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 ▲정통성과 이데올로기 전략(권재성) ▲정치개혁의 의의와 비판(박상병) ▲통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정동규) ▲'신경제. 정책'과 한국 경제의 진로(정대인) ▲'신경제'와 '신노동정책'의 좌절(이병희)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평가(김기덕) ▲언론정책과 개혁과제(강준만)

[논문] ▲자본합리화 운동의 신경향: 기업문화전략을 중심으로(신병현, 김도근) ▲자치시대 도시정부의 과제와 개편방향: 청주시 도시개발기능을 중심으로(이상영, 이재원)

[서평] 민주적 공동체를 향한 신념의 이론화, 그리고 통태적 현실인식을 위한 비정통적 방법론의 모색-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의 이론」(강문구)

[각국노자관계] 브라질 노동운동의 역사적 변천: 신노동조합운동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이중구조 형성(조돈문)

[정책동향] 영국 대처정권하 사회정책의 변화와 그 평가(이상은)

백산서당 / A5신 / 246면 / 5000원

반년간지

쟁점 한국근대사

[특집] 일제강점기는 청산되었는가 ▲일제강점이 한국인 의식구조상에 남긴 영향(이현희) ▲친일파의 숙청: 남한(한승조), 북한(김남식) ▲일제의 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안태정) ▲일제하 농수산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장상환) ▲일제의 사회정책과 그 잔재 청산(임천영) ▲구중독부청사 및 일제가 남긴 기타시설물의 철거 보존 문제: 철거(주남철), 보존(박성봉) ▲일지(김인식), 논저 일록(구선희)

[금년판 한국근현대사의 쟁점](1992. 9~93. 2) ▲임정제작 안중근의사 흉상 및 조선광복군설립기념비의 환국 ▲「제암리 학살」 증인 전동례 할머니 별세 ▲서대문독립공원 조성의 의미 ▲원태우 지사 의거비 제막 ▲이완용 후손의 '재산찾기'

[인물연구] 윤치호 ▲긍정적 평가(유영렬) ▲부정적 평가(서중석)

[역사 뒤에 숨은 애국자] ▲곽중규 ▲전진원 ▲신언준 ▲윤자정 ▲이신애

한국근현대사연구소 / A5신 / 326면 / 5000원

연간지

한국 극예술 연구 (제3집)

▲북청사자놀이의 제의적 극예술적 연구적 성격과 그 의미(사진실) ▲1930년대 유치진의 연극비평 연구(양승국) ▲「일제 면회를 거절하라」와 1930년대 풍자극(김재석) ▲일제강점기 재일본 조선인 연극운동 연구(박영정) ▲합세덕 「동승」의 행위소 모델 분석(김만수) ▲해방직후의 소인극운동 연구(이석만) ▲국립창극단 공연을 통해 본 창극공연대본의 양상(백현미)

[해설] 구소청의 「날아가는 공작」(서연호)

[발굴자료] 회곡 「날아가는 공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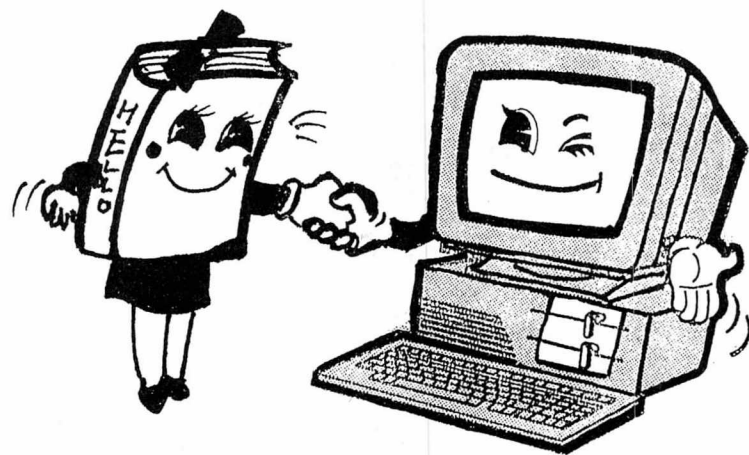
태동 / A5신 / 380면 / 6000원



출판사 사장님께 드리는 글

이런 일꾼이 있다면..

고지식하지만 시키는 일만큼은 깔끔하게 하고, 한달치 월급만 주면 평생 군소리를 안하며, 까다롭지 않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때로는 사장님께 회사를 위한 쓴소리도 하는.



신세대 감각의 출판사 전산화 프로그램

도서관리, 서점관리, 서점별도서관리, 영업관리
매입, 매출, 반품, 수금 관리, 도서수불장, 재고장
거래명세서 발행, 매출장, DM 발송
현금출납장 작성
미려한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보는 경영정보
사용자 중심의 작업환경으로 누구나 쉽게 익힐
지속적인 기능향상을 통한 귀사의 업무지원

시스템 요구사항 : XT급 이상의 IBM PC 및 호환기종
8핀 이상의 도트프린터
필요한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 20메가바이트 이상

다년간의 출판사 전산개발 경력을 토대로 꼭 필요한 업무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전화 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구입문의 : (02) 859-7383, 4
F A X : (02) 863-2852



(주)청송소프트웨어